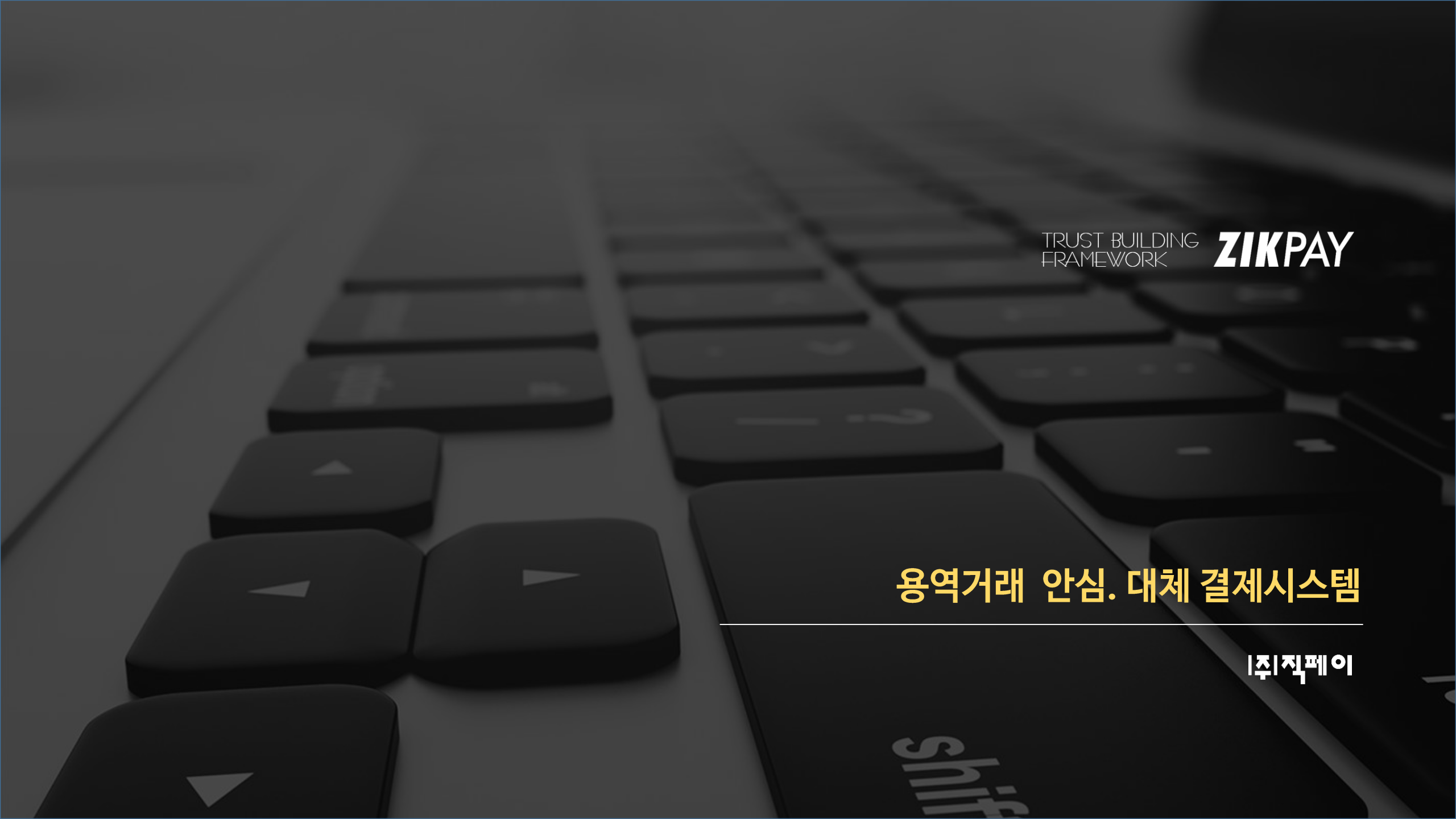


TRUST BUILDING
FRAMEWORK

ZIKPAY

용역거래 안심. 대체 결제시스템

㈜직페이

㈜직페이

2022. 06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신청** (결제대금예치업)
04 직페이 _ 용역거래 안심결제 모바일 버전 개발완료 (V 2.0)
03 ㈜직뱅크 → ㈜**직페이** 상호변경

2021. 12 직페이 _ 용역거래 안심결제 PC 버전 개발완료 (V 2.0)
07 **SK증권㈜ 투자유치**

2020. 11 **2020 서울금융위크 "IP (지식재산) 컴피티션" 우수상 (서울시/특허청)**
10 **한경 핀테크대상 2020 최우수상 수상 (테크분야/지급결제부문)**
02 직페이 _ 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 런칭 (베타)

2019. 10 2019 글로벌 금융 대상 수상 (간편결제부문)
07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
01 **NH농협은행 자금예치사업 업무협약 (직페이 서비스 연계)**

2018. 1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 위탁테스트 업체로 선정 (NH농협은행)**
09 해외 특허 출원

2017. 11 **결제솔루션, 금융 빅데이터 구축 등 국내 특허등록 (2건)**
06 **전자금융업, 금융규제 등 비조치의견서 (금융감독원)**

2016. 08 **해당 사업모델 전자금융업 가능여부 유권해석 (금융위원회)**
04 법인설립 / 특허2건 출원 / 해외 PCT 출원 (결제 솔루션)

© ZIKBANK INC. All Rights Reserved.

직페이 소개

Ver 2.2

목차

서비스 소개	01
용역 거래의 문제점	02
문제점 보도자료	03
솔루션 (서비스)	04
직페이 사용 프로세스	05
서비스 대상 / 기대효과	06
사용자 편익 (중소기업/공공기관)	08
핵심기술 및 분석	10
결제시스템 비교	11
사용 안내	12

고객센터 : 1661 - 5518

평일 : 10 ~ 17시 (주말, 공휴일 제외)

직페이 _ 용역거래 안심결제시스템

건설, 제조, 유통 등 산업 전 분야에서 발생되는 용역거래의 먹튀, 결제지연, 미수금 등 사고 방지

용역거래는 한 건의 계약이 생성되면 필요한 여러 종류의 자재구매와 함께 각 공정에 맞는 협력업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완성하게 되는데 상위 업체가 잘못되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금이나 어음결제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현금은 한번 지급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사기나 먹튀로 피해보는 소비자가 많이 발생하고, 갑질이나 결제지연으로 발생하는 미수금은 악성채권이 되어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이 도산으로 내 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용역거래에서 발주자가 지급한 **거래대금**을 **보호**하고 공급자 및 협력업체의 고질적인 **결제지연**이나 **미수금**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간편한 거래방식으로 **발주자**나 **공급자**, **협력업체**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입니다.

1

세계 최초

직페이 안심.대체결제는
프로젝트 참여자 모두 안전 거래
되는 세계최초 용역결제 솔루션

5

핵심 서비스

먹튀나 사기방지 . 결제지연 방지
지급보증 . 쉽고 빠른 앱 결제 방식
실시간 진행 내용 파악과 업체 관리까지

1

승인 후 다음날 정산

고객 승인을 거쳐 예치 계좌에서 익일 직접
환전 받는 시스템으로 완료 후 익월에
결제되는 현금결제보다 빠르다

© ZIKBANK INC. All Rights Reserved.

용역거래의 문제점 : 결제방식

결제방식의 구조적 문제점 (B2B, B2C, C2C)

고객(발주자) :

“혹시 먹튀나 사기가 아닐까? 불안해요”

선금이나 비용을 미리 지불할 경우가 많은데 …
맡긴 일을 잘 처리 해줄까?
혹시 먹튀나 사기로 피해보지 않을까? 불안.

시공사(공급자) :

“결제 잘 해줄까? 걱정입니다”

① 검증이 안된 신규 거래
② 계약금만 주고 계속 미루는 경우
③ 의뢰 받은 일은 완료했지만, 갑질이나 결제지연으로 일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할 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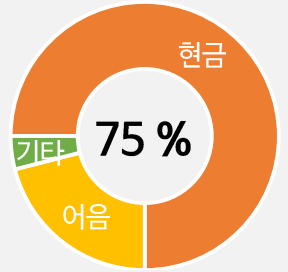
협력업체(자재/기술자)

“거래처 부도나 결제지연이 항상 불안합니다 ”

① 시공사가 고객(원청)에게 못 받았다고 계속 미루는 경우
② 일은 다 했는데, 돈 없다고 지연시키다 잠적하는 경우
③ 시공사의 신용을 확인할 길이 없어 항상 불안.

기존 결제 방식의 문제점(기업)

[현금결제]



중소기업 결제 비율

현금거래 도산 원인

[약속어음]

약속어음 년간 발행규모

약속어음 도산 원인

© ZIKBANK INC. All Rights Reserved.

노컷뉴스

"건축 지식 없는데"..전원주택 건축, 믿고 맡겼다 '봉변'

CBS노컷뉴스 고태현 기자 입력 2019.11.19 04:48 수정 2019.11.19 15:12

[주택 건축의 함정②] 눈뜨고 코베이는 건축주
개인 건축주 외 중소기업도 피해..계약금만 뜯겨

관련 피해는 개인 건축주에 국한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역시 건축회사의 좋은 먹잇감이 됐다.

경기도 파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A사는 문산읍에 본사 매장과 직원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 5월 킨텍스에서 열린 건축박람회를 찾았다.

A사 관계자가 전시장에 들어서자 한 업체의 대형부스가 눈에 들어왔다. '전원주택 시공 1위'라는 홍보와 함께 모델하우스까지 설치돼 있었다.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도 친절했다.

A사는 해당 업체를 좀 더 알아봤다.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설립자가 출간한 다수의 도서, 언론 보도 내용 등 믿음을 갖기 충분했다.

A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같은달 30일 해당 업체와 건축면적 462㎡, 3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기로 하고 6억1000만원에 계약을 체결, 다음날 계약금으로 61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수차례 미팅을 가졌지만 업체가 제대로 된 설계안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4개월이 흘렀다. 8월에 착공하겠다는 업체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A사는 계약 해지를 업체에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A사의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금 50%에서 설계비를 제외한 1675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A사 관계자는 "계약 직후부터 업체는 공사를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만 연기했다"며 "이는 계약금만 편취하려는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수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부실기업이 5개월 가까이 건축주를 유린한 것은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프로젝트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관계자 모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람회 찾아 계약했는데...전시회 주관사는 '나 몰라라'

관련 피해는 개인 건축주에 국한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역시 건축회사의 좋은 먹잇감이 됐다.

"디지털뉴딜 발목 잡는 선급금 제도 손질을"

전자신문

발행일 : 2020.06.02

공공SW 사업 진행시 보증서 발급
100억 수주 땐 수수료만 1억 달해
데이터산언協 회원사 98% "개선 필요"
과기정통부에 인하 요청안 전달키로

디지털뉴딜 추진 정책 발표로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추진이 기대되지만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해 '선급금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선급금을 받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 수수료가 부담이다. 이들은 디지털뉴딜이 코로나19 상황 속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인 만큼 보증서 요율 인하 등 한시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는 '선급금 이행보증 부담 등에 대한 인하 요청안'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에 전달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은 공공SW 사업 진행 시 기획재정부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2장 선금 지급' 계약 예규에 따라 증권, 지급보증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SW공제조합이나 SGI서울보증, 은행 등 금융권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문제는 자금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선급금 지급보증서 수수료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재 SW공제조합이나 SGI서울보증 등 발급기관의 평균 보증수수료 요율은 0.8~1.5% 수준이다. 예를 들어 10억원 규모 사업을 수주하면 발주처는 70%인 7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한다.

기업은 선급금을 받기 위해 560만~10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 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100억원 규모 사업이라면 보증서 발급에만 1억원이 들 수도 있다.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급금을 받을 수 없다.

보증서는 기업 신용도에 따라 발급한다. 수년간 적자 상태인 기업은 보증서 발급조차 안 된다. 사업 초반에 적자를 지속하는 스타트업은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수주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지난해 말 한국데이터산업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6%가 '선급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 등이 문제가 된 적 있다'고 답했다. '선급금 이행보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98%에 달했다.

정부는 디지털뉴딜 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을 투입, 데이터·네트워크·AI 등 'DNA' 생태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 디지털뉴딜 예산이 산업 성장에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 선급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산업 성장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선급금의 적재적소 투입을 위해 현행 제도를 한시나마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대상으로 선급금 보증 수수료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은 올해 말까지 입찰·계약 보증금 등을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공공사업은 이익률이 낮은데 여기에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수수료 비용까지 지급하면 기업 재무 상황이 악화된다"면서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이 상당히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처럼 과기정통부 등 부처가 보증수수료 요율 인하나 선금이행보증 비율(현행 100%)을 인하하는 한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

HOME > 뉴스종합 > 종합

직불시스템, 대금 지급해도 채권자가 통장 압류·가압류 가능 '치명적 하자'

남태규 기자 | 승인 2018.01.29 08:00

체불방지 기능 무력화시킬 수도 있어 파문

정부가 '체불제로'를 내세우며 공공을 넘어 민간에까지 확산시키고 있는 대금지급시스템(직불시스템)에 대금과 임금을 보호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최근 금융권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노무비닷컴 등 민간시스템은 물론 하도급지킴이, 상생결제시스템 등 공공시스템들까지 운영하는 통장인 일명 '에스크로계좌'에 압류 및 가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대금지급이 중단돼 직불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이미 원도급사 채권자의 압류로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업계 전문가들은 "직불시스템이 사용하는 통장은 에스크로계좌라기 보다는 출금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첨부된 일반 계좌에 가깝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압류·가압류가 가능해 홍보대로 대금을 제대로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압류·가압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계좌는 국민연금 등을 지급 받는 특수목적형 계좌밖에 없다"며 "현 구조로는 대금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어 정부가 기대하는 체불근절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직불시스템에서는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오해가 생기는 만큼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류 문제는 공공시스템보다는 민간시스템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스템의 경우 기성금의 법정 지급 기일을 준수하기 위해 지급일에 한도를 두고 있어 압류·가압류에 노출되는 일수가 적지만 민간시스템에는 이같은 기능이 없어 압류에 노출되는 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공공시스템이더라도 대금 지급방식이 채권인 상생결제시스템은 계좌와 채권 모두 압류·가압류가 걸릴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면제돼 위험성이 배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도급업체들은 정부가 체불근절을 위해 직불시스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부작용 검토 등 충분한 사전검증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ZIKBANK INC. All Rights Reserved.

솔루션 [서비스]

사용자 모두 안심 결제시스템

발주자 : 개인 / 기업

공급자 : 소상공인 / 중소기업

안전거래	결제지연	지급보증	부도방지	현금결재
yes	no	yes	yes	yes

기존 결제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 (현금 및 약속어음 대체)

발주자, 공급자, 협력업체까지 참여자 모두 안전한 결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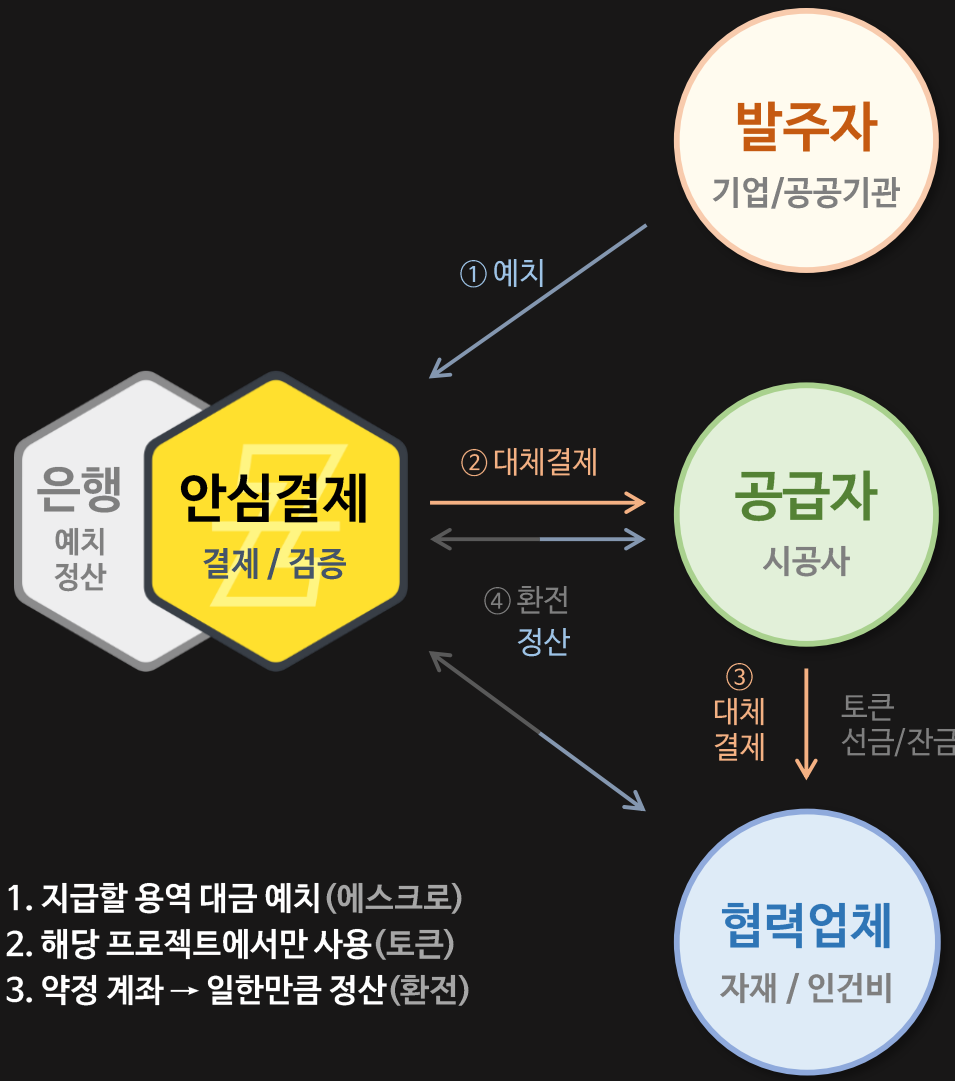
① 고객(발주자)은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할 대금을 안심 계좌에 예치합니다.

② 예치된 금액만큼 해당 업체(공급자)에게 토큰으로 대체 지급(토큰으로 자재, 외주용역, 인건비 등 결제)

③ 승인된 토큰으로 고객이 예치한 계좌에서 직접 환전을 받을 수 있는 특허 받은 결제 시스템입니다.

기존 결제의 문제점

안심.대체결제(특허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 지급할 용역 대금 예치(에스크로)
2. 해당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토큰)
3. 약정 계좌 → 일한만큼 정산(환전)

고객 : 사기, 먹튀, 유치권(분쟁) 차단
업체 : 갑질, 결제지연, 거래처 부도방지
※ 약속어음 피해 사전에 차단(어음대체)

[발행 토큰의 특성]

1. 해당 프로젝트에서만 사용 (교환권)
2. 교환 비율 1:1 (고정가치)
3. 스마트 계약 : 계약정보 + 금융정보 (빅데이터)
4. 환전 된 토큰은 소멸 (구조적 보안)
5. 탈취한 토큰의 환전이 불가능 (거래 검증)

[안심.대체결제의 특징]

1. 참여자 모두 예치 계좌 실시간 금액 확인 → 환전
2. 참여자 전체가 안전거래
3. 고의부도, 금융비용전가, 거래처 부도방지
4. 하도급 대금 지연 및 어음지급 차단
5. 간편한 앱투앱 거래방식 + 빠른 결제 (15일)

© ZIKBANK INC.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대상 / 기대효과

건설, 제조,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B2B, B2C, C2C, B2G)

공사 / 시공

납품 / 유통

제작 / 개발

임금 / 재능

해외 무역거래

공동 프로젝트

용역 / 제작 / 납품 :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 프로그래밍, 각종 아웃소싱
공동사업 : 공동주택, 개발이나 투자 관련 프로젝트
공공기관 / 지자체 : 하도급대금, R&D자금 및 정부보조금, 지역화폐

혁신성 / 기존 에스크로 계좌와 차이점

	기존 에스크로	안심. 대체결제
보호유형	양자간(판매/구매)	**참여자 전체 보호**(갑,을,병,정 / 다자간 / 국내. 외 최초(특허)
예치형태	전액예치	**분할예치**(선금, 중도금, 잔금 / 약정별)
지급방법	완료확정 후 지급	**단계별 / 공정별 지급**(공급자 유동성 확보)
계좌속성	업체 에스크로계좌	**은행 별단계좌**(별도관리 : 통장 압류 및 가압류 안전)
대 항 력	-	**채권양도 대항력 구비**(채권양도의 따른 승낙, 전자문서 시점 확인(확정일자), 관련내용 공시 / 법무부 검토의견 반영)

소비자 편익 / 사회적 편익

	기존	안심. 대체결제
현금결제	먹튀, 갑질, 미수금	**소비자 + 중소기업 보호**(사기, 먹튀 + 갑질, 결제지연 방지)
약속어음	결제장기화, 줄도산	**어음 대체 / 연쇄부도 방지**(고객이 예치한 대금으로 정산)
보증보험	거래금액 2~2.5%	**중소기업 수수료 절감**(예치=지급보증 : 선급금 보증 수수료)
정산주기	45일 ~ 6개월	**15일**(보름마다 정산 : 공급자 유동성 확보 / 정산기간 조절)
공공기관 지자체	하도급 대금 지연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하도급 대금 지연 방지**(대체결제 : 해당 프로젝트에서만 사용) **R&D자금, 보조금 부정사용 차단**(사용처 실시간 확인. 투명성)

© ZIKBANK INC.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대상 / 기대효과

[고객] B2C / C2C

B2C : 이사, 청소, 집수리, 맞춤가구, 제작의뢰 등 생활 용역이나 인테리어, 주택 공사 등 용역 거래의 안심결제.
C2C : 재능, 임금, 등 개인간 안전거래

사기나 먹튀 등 피해를 차단하고 하자나 유치권과 같은 분쟁 감소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 줌

[기업] B2B / B2C

건설, 제조, 유통,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발생되는 기업간 거래의 안심결제. 약속어음의 문제점 해소 및 어음 대체. 발주자 공급자 협력업체간 신뢰성 확보

갑질, 먹튀, 결제지연, 미수금 임금체불 사전 차단 / 기업간 신뢰로 안심결제 / 매출 증대

[무역거래] B2B

신용장(LC OPEN) 거래는 당사자만 안전하지만 딜러, 제조사, 하도급 등 참여 업체 간 결제지연과 먹튀를 사전에 차단

발주자, 딜러, 공급자, 협력업체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자 모두 안전하게 프로젝트를 수행

SAFE

국민 혈세 부정사용 차단

[공공기관 / 지자체] B2G

공공기관 지자체 결제시스템 대체 / 한눈에 보이는 사용내역 / 관리 비용 절감. 선급금 보증 대체(거래대금 2% 절감)

하도급 대금 지연 방지 / R&D 자금, 연구비, 보조금 등 부정사용 차단 / 투명하고 간편한 방식

© ZIKBANK INC. All Rights Reserved.

사용자 편익 (중소기업)

직페이_안심결제 적용 시 중소기업이 갖는 기대효과

비용절감 (수주금액 10억 / 선급금50% 기준)

	기존 방식	안심. 대체결제
선급금 보증	1,000만원(5억 x 2%)	X
단기차입금	900만원(년7% x 3월)	X
이용 수수료	X	200만원

※ 안심결제 이용수수료는 거래 금액별 차등 수수료 0.2~1.2%가 적용됩니다.

기존 대비
80%
비용절감

사용자 편익 (발주자 / 공급자 / 협력업체)

	현금 결제	안심. 대체결제	
안전거래	X	O	**고객 + 중소기업 보호**(사기, 먹튀 + 갑질, 결제지연 방지)
부도방지	X	O	**거래처 부도 방지**(고객이 예치한 대금으로 정산)
지급 보증	X	O	**채권확보**(예치 금액만큼 대체 결제 = 지급보증)
선급금 보증	거래금액 2~2.5%	X	**선급금 보증료 100% 절감**(거래대금 예치 = 지급보증)
정산주기	45일 ~ 6개월	15일	**보름마다 정산**(공급자 유동성 확보 / 정산기간 조절)
부정사용 방지	X	O	**투명한 거래**(대체결제 : 해당 프로젝트에서만 사용)
채권양도 / 대체결제	X	O	**참여자 전체 안전거래**(해당 프로젝트에서 현금처럼 사용)
법적 대항력	X	O	**채권양도에 따른 대항력**(비대면 확정일자)

© ZIKBANK INC. All Rights Reserved.

사회적 편익 (공공기관 적용시)

직페이_안심결제 적용 시 발주자(공공기관)이 갖는 기대효과

공공기관 적용 시 비용절감

	기존 방식	안심. 대체결제
시스템 개발비	O	X
유지 보수비	O	△
중소기업 보증 부담	O	X
부정 사용 집행 승인 검증 인력	O	X

기존 대비 80% 인력 절감

기존 대비 95% 비용절감

사회적 편익 (공공기관 / 지자체)

	현금 결제	안심. 대체결제	
안전거래	X	O	**고객 + 중소기업 보호** (사기, 먹튀 + 갑질, 결제지연 방지)
부도방지	X	O	**대체결제로 부도방지** (공급자 → 하도급 채권 이동/확보)
선급금 보증	거래금액 2~2.5%	X	**중소기업 선급금 보증료 100% 절감** (공정율 = 정산)
정산주기	45일 ~ 60일	15일	**보름마다 정산** (공급자 유동성 확보 / 정산기간 조절)
채권양도 / 법적 대항력	X	O	**채권양도에 따른 대항력** (비대면 확정일자)
하도급 결제지연 방지	△	O	**채권 확보** (발주자 승인 = 대금 정산/환전)
부정사용 방지	X	O	**R&D /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차단** (해당 프로제트에서만 사용, 사용처 실시간 확인, 투명성)

© ZIKBANK INC. All Rights Reserved.

결제시스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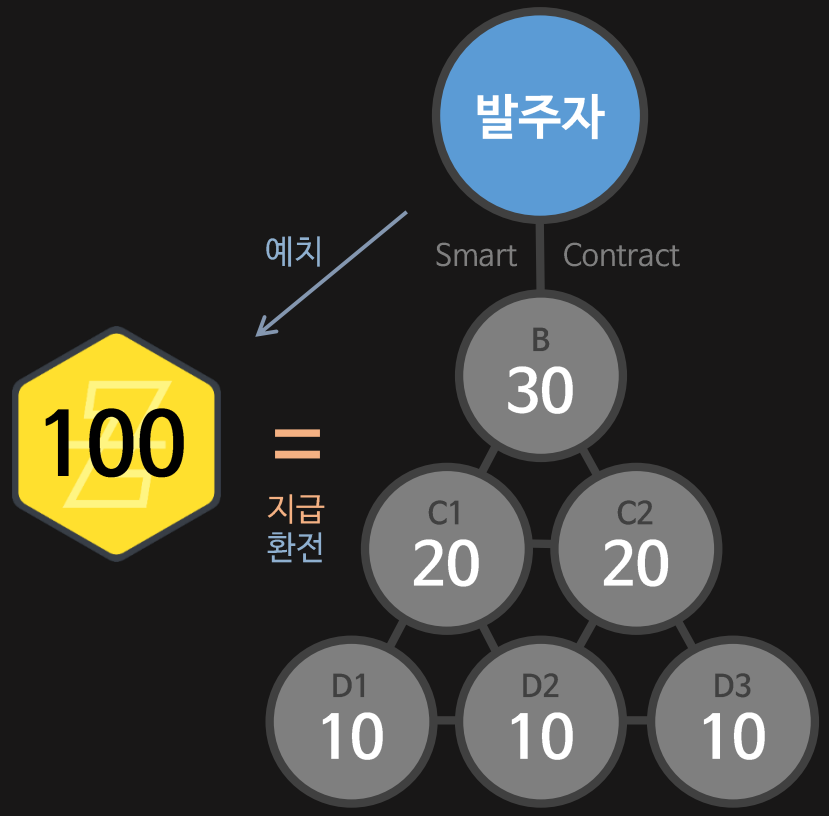
결제시스템 별 장.단점 분석

	에스크로(은행)	하도급 지킴이	상생 결제	직페이_안심결제
대금 지급 수단	현금	현금	상생채권 / 현금	현금 / 토큰(대체결제)
사용 대상	공공 / 민간	공공기관	공공기관 / 대기업	공공 / 민간(산업 전반)
지급보증 (보호대상)	△ (계약 당사자)	X (당사자)	△ (하도급만)	O (프로젝트 참여자 전체)
정산 주기	완료 / 승인 확정 후	약정 / 청구 후	60일	15일 (승인 후)
연쇄도산 방지	△ (계약 당사자)	△	△ (60일 후 하도급만)	O (채권 확보로 안전)
갑질 / 결제 지연 방지	△ (계약 당사자)	X	△ (하도급만 예치)	O (스마트 에스크로)
부정 사용 방지	X	X	△ (하도급만)	O (대체결제/해당 프로젝트)
사용 계좌	전용 계좌 개설	전용 계좌 개설	전용 계좌 개설	본인 계좌 사용 (별도 계좌 X)
통장 가압류 시 대금 지급	X	X	X	O (은행 별단 계좌)
채권양도 / 법적 대항력	X	X	X	O (비대면 확정일자)
선급금 보증 대체	△ (계약 당사자)	X	X	O (참여자 전체)

© ZIKBANK INC. All Rights Reserved.

핵심 기술 및 역량

특허(BM) 2건 등록 / 해외 특허출원



은행 예치금액 = 대체 지급된 토큰의 합

1. 핵심기술 : 결제 솔루션 특허

	암호 화폐	직페이 대체결제(토큰)
생산방식	채굴 (비용발생)	예치 (생성 → 거래 → 환전)
거래방식	별도 거래소 (침해, 조작)	사용자 직거래 (거래소 불필요)
화폐가치	수요 + 공급 (제한적)	실물 기반 (예치된 현금 1 : 1 환전)
특징	범용성 / 익명성 (악용)	폐쇄성 / 실명제 (악용방지)
보안성	분산저장 (지속성)	소멸성 + 거래증명 (환전 시 토큰 소멸/안전)

2. 핵심기술 : 빅데이터 구축 특허

	일반 데이터	스마트계약을 통한 실제 데이터
목적성	X	O (정확한 프로젝트의 성격)
수량	3~5개	150~500개 (블록+체인)
유형	Normal	Real (실제 프로젝트 참여자)
사실 검증	Normal	토큰검증(악용방지) + 블록체인 응용기술
종류	Normal	참여기업, 금액, 제품의 종류, 사용처

© ZIKBANK INC. All Rights Reserved.

경쟁력 및 진입장벽

해당 사업모델의 경쟁력

1

세계최초

결제방식, 안심 계좌 속성,
채권의 대항력 등 시장 선점

2

BM 특허 2건

대체결제솔루션 특허
금융빅데이터 구축 특허

1

빠른 결제

발주자 승인 후 익일 결제,
참여자 모두 안심 결제

23

사업경험

실무경력 7년
건설업 사업 15년

© ZIKBANK INC. All Rights Reserved.

회원 가입

직페이 메인 화면

서비스 소개 / 프로젝트 현황

사용 약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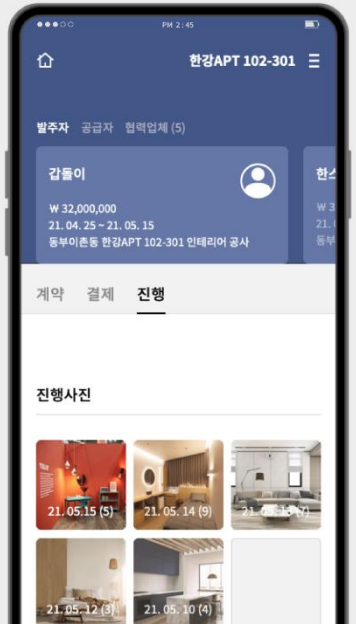
프로젝트 등록

안심결제 사용약정

대금 예치

프로젝트 진행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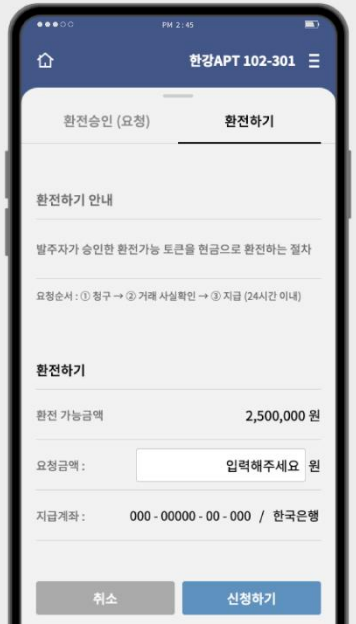
계약 / 결제 / 진행현황



진행 현황

환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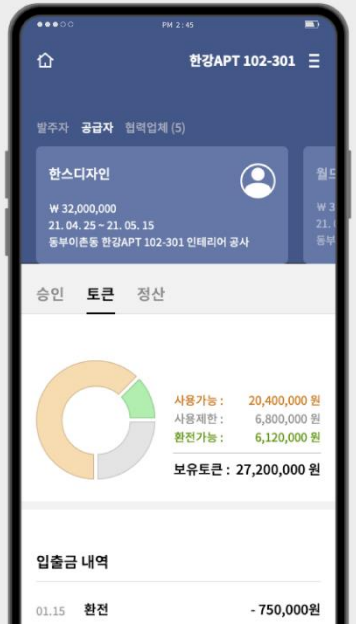
대체 결제된 토큰 환전



환전 정산

내 프로젝트 현황

승인 / 토큰 / 정산현황



www.zikpay.com
소비자와 중소기업 모두 안전거래를 위한 결제 솔루션
ZIKPAY
직거래할 때
직페이로 안심결제 하세요.~